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지난달 27일 치른 독일 총선에서 중도우파인 기민당(CDU)과 기사당(CSU) 연합이 확실한 우위를 확보한 가운데 우파 자민당(FDP)이 약진해 독일에서 세 정파가 안정적인 우파 보수연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

나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 유럽의 우향우 추세는 21세기 초에 유럽을 휩쓴 좌향좌 추세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짙다.

유럽의 '우향우'와 언론 보도

문은 목살하고 우파득세가 대체를 이루고 있는 현상만을 과장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자 유럽은 좌파 집권이 대체를 이루었다.

유럽 유권자들이 새 천년의 꿈을 펼쳐갈 세력은 좌파뿐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 착각까지 느끼게 했다. 그런 좌편향의 진자운동(振子運動)의 반작용으로 요즘 우파 득세가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파득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좌우파가 교대해가며 집권하는 전통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향우했다가 다시 좌향좌 하고, 좌향좌했다가 다시 우향우 하는 것이 선진국 정치의 모미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최근에 좌파가 집권했다. 물론 미국에서는 좌우파의 정권교체가 전통이 된 지 오래지만 일본은 정

당정치를 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해 정치를 얼마나 잘할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지만 정권교체의 제도화가 일본의 민주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다른 요소 하나는 유럽 우파의 공약 가운데 우리나라 우파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꽤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만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을

당당하게 내걸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분명한 제동이 그 예다. 기업을 살리되 신자유주의의 맹목적인 시장제일주의를 경계하는 정책을 내세운 것도 이채롭다. 메르켈은 좌파가 진유물인 것처럼 내세우는 공약을 대폭 수렴함으로써 좌파의 표를 빼앗아 오는 데 성공했다.

우리 매저지 신문이 유럽의 득세를 체계적 추세인 것처럼 과장하고 유럽 우파의 공약에서 두드러진 진보적 성격을 간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하나의 체질로 굳어진 정파성 때문이다. 뻗속까지 스며든 정파성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물의 한 측면만이 크게 보이는 것이다.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농협 도덕적 해이·부실 경영 책임 꼭 물어야

농협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부실 경영이 도를 넘었다. 질체질명의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농협 자회사 임원들은 여전히 역대 연봉 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800억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 소유, 중앙회 자녀의 해외 유학비 지원까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5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실상은 너무 충격적이다. 경제난 여파에도 농협 자회사 임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전년보다 6.8%가 인상돼 1억7천200만원을 기록했다. 또한 고객 예금을 해지해 카드대금을 때우고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로 5년간 무려 909명이나 징계를 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농협이 무려 821억원에 달하는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3년간 중앙회 직원 자녀의 해외유학자금으로 사용된 돈은 10억9천400만원에 이른다. 이는 농자재값 폭등과 늘어난 가는 농가부채 등으로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목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거대 공룡' 농협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농협을 주인인 농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의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 그 첫 단추는 도덕적 해이, 부실·방만 경영의 책임을 물어 전·현직 책임자를 엄벌조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인부터 반성해야 한다. 수년 전부터 거론돼온 농협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전히 비리 온상을 남는 것은 표를 의식하고 농협의 로비에 넘어간 정치인들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지적을 새겨 들어야 한다. 아무튼 국가와 농업을 위해서 농협을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 부당행정·비리 철저히 감시해야

각종 부당 행정행위와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광주·전남지역 공직사회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장흥·장성·화순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280여건의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이런 감사결과 부당행정행위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개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할 물품을 수의 구매하는 것은 물론 성과상여금 수역외를 부정적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승진이나 계약근로자 채용과정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생략됐고 불필요한 설계로 인한 예산손실 사례도 드러났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공무원들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광주·전남 지방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부당수령한 각종 수당이 16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 해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265명이 음주운전 등 뒤편 손상이나 각종 비리로 징

계를 받았다. 해남에서는 7급 공무원이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금이 추락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지난해에는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위장수령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마다 공무원 시험에 대학생이 대거 몰려 '공시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직사회는 인기 직종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과거와 달리 처우도 사기업쟁을 통해 구매해야 할 물품을 수의 구매하는 것은 물론 성과상여금 수역외를 부정적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승진이나 계약근로자 채용과정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생략됐고 불필요한 설계로 인한 예산손실 사례도 드러났다.

공직사회 청렴도는 국가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한다. 공직사회가 부패와 비리에 만연해 있다면 국가와 지역의 미래는 그만큼 암담할 수밖에 없다.

無等鼓

지난 1일 중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현대 중국의 위용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지난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모택동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를 선포한 지 꼭 60년 만에 세계는 이제 중국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특히 30만 여명의 학생과 군중, 장병이 동원돼 중국의 건국을 선언했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는 자체 제작한 공중경보기를 비롯한 핵탄두 미사일 등 가공할만한 신무기들이 등장해 주목됐다.

다. 중국이 건국 60주년을 맞아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가졌음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다.

두 시간 넘도록 계속된 행사 내내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물론이고, 중국인과 전 세계 화교들의 얼굴은 긍지로 가득 찼다. 이날 행사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는 이벤트였다. 이에 못지 않은 무서운 힘이 중국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차이완'(Chiwan)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차이완은 중국 대륙을 뜻하는 차이나(China)와 대만(Taiwan)의 화해와 결속을 의미하는 합성어. 건국 60주년은 지난 1949년 대륙과 대만이 등을 돌린 후 화해무드가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맞은 것이어서 양측은 더욱 의미심장했다.

그간 중국과 대만은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에 쫓겨 1949년 대만으로 넘어가면서 적대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008년 5월 대만에서 국민당 출신 마잉주(馬英九) 총통 정부가 출범하며 양안 관계는 빠르게 부드러워졌다. 중국과 대만은 경제발전이라는 실용 노선을 택한 후 언제 서로 싸웠느냐는 듯 만날 때마다 부동태 안고 불을 비벼댄다.

무엇으로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안으로는 민족통일을 부르짖는 중국. 아직도 뒤를 떠서 있는 남·북한에는 분명 부러운 모습이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차이완'



기고

유태명



신종플루 여파로 개최여부를 놓고 혼신을 빚었던 '제6회 충장축제'가 우려곡절 끝에 며칠 후면 시민들과 만나게 된다. '무릇 세상의 모든 것은 아픔의 과정을 겪고 나아 더 아름답고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했던가. 올 충장축제도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내용뿐 아니라 운영도 건강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그 참 뜻을 되새기게 된다.

사적인 주제요, 따로 먹거리·풍물거리를 설치할 필요도 없이 모든 상가와 상인을 설치대상으로 삼아 살아있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일종의 도심 거리축제의 전형이다. 마지막으로, 옛 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

올 가을에도 충장로에서 만나다

다. 5월 항쟁 당시 민주주의의 광장이었던 금남로가 30여년이란 시간을 돌고 돌아 국민 화합과 소통이 이뤄지는 문화 광장으로 영예이 확대되었다는 자제만으로도 벌써 마음을 설레게 한다.

두 번째로 축제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축제의 전시관을 비롯한 모든 시설물에 생동감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전시관은 단순한 추억 물품을 전시하

는 형태였지만 올해 전시관에는 이야기가 있는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출생부터 노년까지의 다양한 삶을 전문배우가 직접 연기를 펼쳐 '그때 그 시절'을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옛 분위기가 그대로 재현된 축제에 오면 추억의 전시관, 추억의 거리, 추억의 풍채화 등을 통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추억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착각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작한 축제 본연의 목적이 충실하기 위해 동구 일원의 전 상가가 참여하는 '충장로 스트리트 세일'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충장로 스트리트 세일은 축제 기간에 전 상가가 자발적 열가 세일을 실시함으로써 축제와 함께 지역사회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곧 자치단체의 열악

한 재정확보에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은 독일 '뮌헨의 10월 축제'와 '영국 에딘버러 축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뮌헨의 맥주축제로 명명되는 시민 축제로서의 10월 축제는 19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대정신과 시대의 문화상을 반영해오는 전통축제로 잘 알려져 있다. 10월 축제가 시작되면 뮌헨시는 경제면에서 활기를 띠 정도로 10월 축제는 삼권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충장축제도 이제 '도심길거리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후한 평가와 함께 지난해 131억원의 지역경제 생산과급효과를 창출하는 효자상품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하여 올해 '제6회 충장축제'에서도 중·장년층을 비롯한 7080세대와 관련한 향수를 자극하는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 참여 행사 등으로 축제의 본질에 충실할 뿐 아니라, 10~20대는 물론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충장축제가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축제로 한 단계 더 성숙·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동구정장>

NGO 칼럼

탁인석



총선 16개 시·도 경제권시대에서 MB 정부는 광역권 경제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책기조의 변화이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국가균형 발전에 있었다면 현 정부는 수도권 및 지방이 각각 글로벌 경쟁 요소를 갖춰 세계적인 지역 도시로 성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른바 5+2 광역권으로 나눠 지역발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동질성 권역을 크게 묶어 더 효율성을 내고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수영장은 대중이 이용하고 또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지만만큼 위생을 철저히 지켜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더군다나 각종 전염병이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수영장이니 이런 청결과 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 바란다.

'광역경제화시대' 호남은 뭘 먹고 사나

지역'으로 잡아놓고 있다. 풀이하면 이런 말이겠다. 삶의 질이 제고되면서 이제는 웰빙, 문화, 생태환경이 중요시되고 세계화 시대에 국경 없이 이동하는 인구와 자본과 기술은 생활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래관점으로 보자면 호남권 개념이 선진적이라 볼 수 있으며 미래의 '밥'이라 볼 수 있다. 호남권 경제 발전

이 잘하기 위해서 5대 국책사업이 선정된 바, 즉 새만금개발, 여수엑스포, 서남해안연륙로, 호남고속철도, 광주 외곽순환도로가 추진될 것이며, 호남권 2대 선도 산업은 태양발전이나 풍력 산업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광산업과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친환경 부품소재가 될 것이다.

시대정책 추이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호남의 정체성이나 특수성을 일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시대이고, 3개 시·도 간에 이기 정책이 아닌 발전적 공동운명정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를 객관화해보자. 광주를 포함한 호남의 브랜드가치가 5%나 될까. 광주의 자난도 호남의 유지성공이 시민의 절대적 지지자 결정적이었듯이 광역경제권 시대에는 호남 전체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 유니버시티, 여수엑스포, 새만금 프로젝트, 김치축제, 한옥축제 등이 해당시도가 간사역을 맡고 호남권 전체행사로 가야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꼭 성공해야 호남이 먹고 살 텐데 여기저기 걸림돌이 보인다. 5+2에 대한 불만도 있다. 5+3이 더 맞다고 주장하는 측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밀방'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건이다. 민자 사업을 제외하고 25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다.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인 만큼 지금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향후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인프라 하드웨어에 비해 선도 산업과 거점대학 육성 등 소프트웨어 부문은 구성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다 세부적인 플랜이 마련되어 광역경제권 내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지하지 않고 대결스럽다는 듯 바라만 보는 부모, 이들은 하나같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이웃이 웃으며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회장·한국 산학협동연구회 이사>

대중이 이용하는 수영장 위생관리 철저해야

수영장을 다니다 중 수영장 밀박막에 수박씨 같은게 보여 들어가 건져봤더니 정말 수박씨였다. 그게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왔을까 궁금했지만 우선히 떨어져 들어왔겠지 했다. 그런데 다시 열흘쯤 지났을 때 수영장 바닥에서 또다시 일회용 밴드를 발견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맨몸으로 들어가 수영하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이물질들이었다. 더군다나 수영을 하다 보면 불카피

하게 입으로 수영장 물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자주 눈에 띄니 너무나 불쾌했다.

수영장은 대중이 이용하고 또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지만만큼 위생을 철저히 지켜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더군다나 각종 전염병이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수영장이니 이런 청결과 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 바란다.

▲이동현·광주시 남구 덕남동

버스 좌석 독점, 타인 배려하는 마음 아쉬워

연휴 첫날 좌석 버스를 탔을 때 이렇다. 두 명이 앉아야 할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승객이 많았다. 비어 있는 좌석에 앉으려니 그곳엔 혼자 앉은 승객이 놓아둔 짐 때문이어서 앉기가 어려웠다. 앉은 승객은 지그시 눈을 감고 모른 척, 자는 척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두 좌석을 전세 놓은 듯한 태도는 다른 승객을 화나게 한다

그뿐 아니라 벌써 술에 취해 좌석에 드러

누워 잠을 자는 사람, 친구와 얘기하면서 마치 제집 거실에 온 듯 목청껏 대화하는 사람, 추석 연휴 나들이에 떠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를 지지하지 않고 대결스럽다는 듯 바라만 보는 부모, 이들은 하나같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이웃이 웃으며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성해·광주시 서구 벽진동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